한양대학교 2020학년도 논술전형

인 문 계 열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유의 사항

1.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1) 답안지를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가)와 (나)를 토대로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고, 서로 충돌하는 집단기억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1,200자, 100점)

(가)

오늘날 우리는 기억이 하드 디스크의 자성 패턴과 유사한 방식으로 두뇌에 기록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에 대한 이런 비유는 근본적 수준에서 틀렸다. 기억은 선사 유적지의 뼈처럼 뇌의 어딘가에 묻혀 있다가 무처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지 않으며 두드러진 특징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게다가 무와 달리 기억은 떠올리는 과정에서 원래 내용이 고스란히 보존되는 것도 아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은 그보다는 연결되지 않는 영화의 여러 장면을 보고 나머지 내용을 짐작하여 그럴듯한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것에 더 가깝다.

이처럼 기억은 본질적으로 재구성의 성격이 강해서 작화(作話) 혹은 '이야기 지어내기'가 끼어들기 쉽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기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혼동하거나, 전혀 일어난 적도 없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인지심리학자 랠프 헤이버는 자신이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스탠퍼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하곤 했다. 어머니는 집에서 가까운 미시건 대학원에 가기를 원하셨지만, 자신은 좀 더 먼 곳으로 가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헤이버가 어머니의 8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고향집을 찾았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그와 어머니가 주고받은 편지 뭉치를 건넸다. 첫 편지를 읽고 그는 다른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미시건에 남겠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정작 그의 마음을 돌려 스탠퍼드에 가도록 설득한 것은 어머니였다. 이에 대해 헤이버는 "나는 어려운 결정을 놓고 갈등이 많았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결국에는 내가 가정을 떠나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과 조화될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틀림없다."고 설명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헤이버의 주 연구 주제는 '자전적 기억'이다.

(나)

태평양전쟁 막바지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히로시마는 현재 전 세계적인 반핵 평화운동의 상징이다. 1951년에 사망한 피폭 희생자 나가이 다카시는 "아름다웠던 나가사키를 이런 잿빛 언덕으로 바꾼 것은 누구인가? … 우리들이다.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우리들 자신인 것이다."라고 스스로 질책했다. 반면 2015년 8월, 일본 총리는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원폭 투하, 도쿄를 시작으로 각 도시에서의 폭격, 오키나와에서의 지상전 등으로 인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남김없이 희생됐습니다."라며 피해자 의식을 강조하였다. 일본인들은 언제부터 전쟁 경험을 피해자의 기억으로 인식하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누구의 기억이 공유되어 왔는가, 지금 그들이 기대고 있는 역사는 누구의 기억인가?

종전 후 일본인들은 전쟁의 도발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일본 군부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극동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는 전쟁 도발의 책임을 지고 처형되었다. 반면 일반 국민은 전쟁의 책임에서 면제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은 군부의 폭주에 의해 이루어진 잘못된 전쟁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1950년대부터 히로시마가 반핵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전쟁 당시의 피폭과 공습 경험은 피해자 의식을 자극하였고, 공습에 대한 자전적인 기억의 수집과 보존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1960년대부터 본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공습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많은 도시에서 생존자 경험담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각종 단체가 결성되었다. 당시 일본인이 전쟁을 기억하는 주된 방식은 자신들이 후방에서 피해자였다는 것, 특히 200개 이상의 도시가 파괴되고 약 33만 명이 사망한 공습의 피해자였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시의 고통과 기억을 수집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평화를 촉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을 전시 일본 정부에 희생당한 사람들로 기억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전적인 기억들은 점차 지역이나 공동체의 집단기억으로 굳어져 갔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전적 기억을 수집할 때부터 피해자로서의 기억을 집중적, 선택적으로 모은 것이었다.

전쟁 세대는 1945년 이후 출생자들, 즉 포스트메모리 세대에게 전쟁 기억이 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전사자의 죽음을 찬미하는 서사들이 등장하면서 전쟁 기억이 미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따라서 이들은 진정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 충분히 전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당시 전쟁에 대한 자전적인 기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하고 상충되는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시기에는 일본 내에서 세대 사이에 서로 다른 전쟁 기억이 공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고 화해할 수 있었다. 당시 전쟁 경험담 수

집을 통해 후방의 목소리, 공습에 대한 목소리, 일본인의 고통에 대한 수많은 목소리가 보존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전적 기억을 바탕으로 어떤 이들은 회고록을, 어떤 이들은 동화책을, 어떤 이들은 소설을 집필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후방에서의 전쟁 경험을 다룬 상업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가해자를 밝히지 않은 채 이름 없는 전쟁 또는 악의 희생양으로 후방에 있던 일본인들을 묘사하였다. 이들의 희생자 서사에서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웃 국가들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기억은 집단기억 형성 과정에서 침묵하거나, 무시되거나, 미화되거나 또는 전범 재판으로 마무리된 기억일 뿐이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일본이 누리는 평화와 경제적 번영은 전쟁 세대가 겪은 고통과 상실 덕에 가능했다는 기억을 전해주었다. 결국 이러한 대중문화 작품들은 부모와 조부모의 전쟁 기억과 이야기를 일본의 역사와 연결시켰다. 이제 피해자들의 자전적 기억들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사회적인 집단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평화를 위한 교훈 정도로 활용되던 전쟁의 기억이 포스트메모리 세대의 어린 시절을 온통 지배하게 되었다. 포스트메모리 세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고 이로써 이들은 이해할 수도, 재현할 수도 없는 부모 세대의 트라우마, 즉 전쟁의 트라우마와 시련·상실의 트라우마를 물려받게 되었다. 게다가 전쟁의 또 다른 유산인 전쟁 책임도 물려받았다.

일본인의 전쟁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1995년이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일본은 교과서 왜곡 문제로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갈등을 유발했고, 1985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전쟁 책임과 관련된 우려를 샀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이 종언을 고한 후, 이웃들인 한국과 중국, 타이완 등지에서 냉전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던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자행한 잔혹 행위가 부각되면서 피해자로서의 일본의 집단기억은 이웃 국가들의 전쟁 기억과 충돌·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전후 일본의 집단기억 형성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미국과 일본의 전쟁으로 단순화되면서 잊혔던 일본의 침략 행위가 드러났고, 이는 일본에게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요구한 것이었다. 종전 50주년이었던 1995년 무라야마 총리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제도에 관여한 사실은 물론 일본이 아시아 민중에게 상처와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후 일본 정부가 우익 쪽으로 기울면서 이러한 성명은 무색해졌다. 가해자의 기억을 일본의 집단기억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1997년에 '모두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과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설립되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본을 재건하기 위한 정책 홍보 및 대중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인 '일본협회'가 설립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일본으로서는 이웃 국가들과의 기억 전쟁에서 일본의 전쟁 기억을 집단기억, 즉 국가적 기억으로 편입하여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매우 컸다. 후소샤 교과서는 이른바 역사수정주의 입장에서 일본이 치른 모든 전쟁의 침략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대해 만주에서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블록경제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경제 봉쇄로 일본이 곤궁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포스트메모리 세대에게 전쟁의 문제는 책임감, 죄책감 같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었다. 그들은 이전 세대가 누리던 경제 성장을 누리지 못한 세대였다. 전후 세대 사이에 자신들이 전쟁에 대해 책임지지 않게 해주는 상징적인 제스처를 환영하는 경향이 생겼다. 죄책감의 압박과 전시의 고난이라는 이름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해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을 전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피해자적 기억을 역사로 받아들였다.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일본이 방어를 위해 전쟁에서 싸웠고 이 전쟁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일 뿐이라는 역사수정주의 인식을 받아들였다. 여기에도 기억을 문화적 도구로 보고 기억의 선택과 망각 과정을 통해 집단기억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잘 드러나 있다. 1995년의 전환 이전 일본인 중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침략 전쟁이었다고 보는 이들이 60~70%였지만, 2013년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는 침략 전쟁이었다는 응답이 45%로 줄어들었다. 현재로서는 일본 내에서 전쟁의 성격에 대한 서로 다른 집단기억이 맞서고 있는 형세이지만, 이웃 국가들의 자전적 기억이나 남겨진 사료에 비추어 어떤 집단기억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역사수정주의적 집단기억이 보다 우세해질 가능성도 있다.